

유방암으로 오인된 악성 임파종 1예

전북의대 내과 문치영\*, 전현순, 염정필, 박재용, 임창열

연자들은 유방암으로 오인된 악성 임파종 1예를 통하여 유방종물의 임상적인 의의와 폐경후 여성에서 유방의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및 선별검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환자는 내원 2개월 전 우연히 발견된 유방의 우하내측 무통성 종물과 액와임파절 및 경부임파절 종대를 주소로 내원한 71세 여자환자이었다. 임상적으로 유방암을 추정하고 유방종물과 경부 및 액와임파절에 대한 미세흡인침세포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의 악성임파종이 의심되어 검사 2주후 입원하였다. 입원후 실시한 유방종물의 적출생검상 유방의 non-Hodgkin's large B-cell lymphoma로 확진하였고 병기진단 검사상 골수, 복강내 임파선, 종격동과 흉벽임파절등을 침범한 소견을 보이는 최종병기 stage IV의 악성 임파종이었다. 환자는 확진후 바로 2차례의 복합화학요법(CHOP)을 포함한 강력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급격히 임상증세가 악화되어 2차 화학요법후 2주만에 사망하였다.

본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방종물의 발생시기와 원발성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임파종의 치료에 따른 임상경과가 대부분 양호함을 고려해볼 때 유방 및 경부임파절에 대한 선별검사를 매년 실시하였더라면 비교적 낮은 병기에서 조기발견하여 생존율을 높일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이전 증례보고들에서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무통성의 유방종물의 진단을 위해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비록 그 빈도가 드물다 하더라도 적출생검을 통해 임파종을 포함한 유방의 다른 질환을 먼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원발성 결막 림프종 1례

전북의대 내과 염정필\*, 박재용, 임창열

결막에 발생하는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NHL)의 빈도는 원발성 안와 종양의 10%, 림프질의 림프종의 2-4%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 결막에 국한되어있고 종양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종양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시 환자의 예후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안와 림프종의 치료는, 병기가 낮은 low grade NHL는 시력저하와 구조물의 보존을 위해 수술적 방법보다 방사선치료가, intermediate- and high grade NHL는 복합화학요법 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병합요법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 보인 결막에 발생한 단측성 low grade NHL의 경우 종양의 크기가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시력저하 및 미용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였고, 환자가 방사선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시력저하, 백내장, 각막염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여 안검의 종양의 수술적 제거후 항암요법을 선택하여 치료후 추적검사결과 좋은 반응을 보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9세된 여자 환자로 좌측 결막충혈 및 부종을 주소로 안과에 내원하여 검진 상 결막 상하부에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결과 비호지킨림프종 (low grade B cell lymphoma of MALT)진단되어 내과로 전과되었다. 이후 병기 결정 위해 흉부 및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과 Gallium scan, 양측 골수검사를 시행하였다. 종양은 좌측 결막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B 증상은 없었다 (stage IE). 치료는 결막안검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방사선 치료시 시력저하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일단 수술적 제거후 항암제 병용요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CHOP regimen을 사용하였다. 환자는 약 4개월 동안 6차 항암제 투여후 반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재병기 평가 (restaging)결과 완전 관해 (complete remission)를 보였고, 이후 약 9개월 동안의 추적검사 결과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